

1.글로벌 채권

\* <뉴욕 채권> 국채가격은 9월 비농업부문 고용이 월가 예상치에 못 미쳤지만 연방준비제도(Fed·연준)의 12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오히려 커지면서 혼조 마감

\* 국채가격, 개장초 9월 비농업부문 고용 증가가 월가 예상에 못 미쳤지만, 임금 상승률이 높게 나오는 등 엇갈리면서 급등락을 반복하다가 11월 인상은 물 건너갔다는 인식에 상승 쪽 방향을 잡았다

\* 유가 상승이 물가 압력 전망을 강화한 데다 되풀이되는 부인에도 ECB의 테이퍼링 우려가 지속한 점도 국채가 하락에 일조

\* 이후 국채가는 12월 인상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점이 주목받는 데다 매파인 스탠리 피셔 연준 부의장의 발언마저 나오면서 반락

[미국]

2y 0.83% (-2.0bp)

10y 1.72% (-1.9bp)

30y 2.45% (-0.3bp)

[기타 10Y물]

영국 0.97% (+9.9bp)

독일 0.02% (+3.8bp)

프랑스 0.31% (+2.8bp)

이탈리아 1.38% (+4.1bp)

스페인 1.01% (+0.7bp)

그리스 8.15% (+4.0bp)

2.글로벌 증시

\* <뉴욕 마감> 기대 못미친 고용지표 & 유가 부진에 하락...9월 고용 둔화에도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 지속

\* 개장 전 발표된 지난 9월 미국의 비농업부문 고용은 예상치를 하회하는 증가세를 나타내 연준이 금리 인상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에 힘을 실었다.

다만, 임금이 상승세를 보여 연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여건은 유지된 것으로 풀이 & 연준 위원들도 금리 인상 의지를 피력

\* 9월 비농업부문 고용 167K-> 156K (예상:175K)...지난 5월 이후 최저 수준

9월 실업률 4.9%-> 5.0% (예상:4.9%)

9월 시간당 임금 전월 대비 6센트(0.2%) 상승한 25.79달러 기록

\*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'9월 고용지표,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견해를 유지할 정도로 충분히 좋

## 은 수치'

캐자스시티 연은 총재 '9월 고용지표, 경제 전반의 성장세가 지속하고 있다는 고무적인 신호...일부 GDP 부침에도 고용은 여전히 전진하는 모습으로 보인다'

\* <유럽 마감> 파운드화 급락과 기대에 못 미친 미국 고용지표 영향으로 영 제외하고 하락 마감

\* <도쿄 마감> 미국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하락 마감  
8 거래일 연속 약세를 보였던 엔화가 강세로 돌아선 것도 증시에 부담

DOW30	18240.49	(-0.15%)
NASDAQ	5292.40	(-0.27%)
S&P500	2153.74	(-0.33%)
NIKKEI225	16860.09	(-0.23%)
FTSE100	7044.39	(+0.63%)
DAX30	10490.86	(-0.74%)
CAC40	4489.95	(-0.29%)

## 3.글로벌 환시

\* 달러화, 월가 예상치에 못 미친 9월 비농업부문 고용 발표로 주요 통화에 하락

유로/달러	1.1198	(+0.0049)
유로/엔	115.28	(-0.61)
달러/엔	102.89	(-1.04)
파운드/달러	1.24301	(-0.01837)
NDF	1,115.50 / 1,116.00원...0.05원 ↑	

## 4.글로벌 상품

\* <국제 유가> OPEC 회원국들의 감산 합의 후 가격 급등에 따른 이익 실현 매물이 나와 하락  
- 美 원유채굴장비수가 증가해 공급 증가 우려를 부추긴 것도 유가 하락에 일조

\* <국제 금값> 9월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증가세를 나타낸 이후 달러화가 엔화에 급반락세를 보였으나 연내 금리인상 전망 상존으로 하락  
- 6일째 하락하며 이번 주에만 5% 가까이 급락

WTI	49.81	(-1.3%)
COMEX금	1251.90	(-0.1%)

5. 전일 국내 지표

코스피	2053.80 (-0.56%)
코스닥	675.90 (-1.23%)
원/달러	1115.50 (+3.30)
KTB	110.72 (+0.02)
LKTb	131.95 (+0.16)

6. 전일 국내 주요 금리

\* 국고채 금리, 변동성 끝에 혼조세 마감. 커브 플랫닝.

1y	1.3360%	(+0.30bp)
3y	1.3260%	(+0.50bp)
5y	1.3430%	(+0.20bp)
10y	1.5310%	(-0.50bp)
20y	1.5730%	(-1.10bp)
30y	1.5760%	(-1.90bp)
CD	1.3400%	( 0.00bp)

7. 본드 스왑 스프레드

1Y	-3.65bp	(-0.75bp)
2Y	-4.45bp	(+0.15bp)
3Y	-3.35bp	(-0.75bp)
5Y	-2.80bp	(-0.95bp)
10Y	-13.10bp	(-0.25bp)

8. IRS/CRS 동향

\* IRS, 국채선물 강세로 하락 마감. 美고용지표 탓에 시장 전체의 변동 폭이 제한된 것으로 보임.

\* CRS 금리도 소폭 하락. 전일 금리 상승폭을 되돌린 정도.

\*IRS 금리

1Y	1.3075%	(-0.25bp)
2Y	1.2925%	(-0.25bp)
3Y	1.2925%	(-0.25bp)
5Y	1.3150%	(-0.75bp)
7Y	1.3400%	(-0.75bp)
10Y	1.4000%	(-0.75bp)

1*2Y	-1.50	( 0.00bp)
2*3Y	0.00	( 0.00bp)
2*5Y	2.25	(-0.50bp)
3*5Y	2.25	(-0.50bp)
5*7Y	2.50	(+0.00bp)
5*10Y	8.50	( 0.00bp)

\*CRS 금리

1Y	1.1700%	(-1.00bp)
2Y	1.0200%	(-2.00bp)
3Y	0.9750%	(-2.00bp)
5Y	0.9100%	(-2.00bp)
7Y	0.8400%	(-2.00bp)
10Y	0.8100%	(-2.00bp)

9. 주요뉴스

[해외]

\* 파운드화, 아시아 시장에서 3분만에 6% 넘게 급락 (\$1.1841)

- 이후 곧바로 급반등해 낙폭의 2/3 가량을 회복한 이후 횡보하는 흐름
- 일부는 거래 오류 가능성과 브렉시트 우려에 따른 급락 가능성을 제기
- 영란은행, BIS에 조사 요청

\* ECB 금융통화위원들, 지난달 통화정책회의서 양적완화 프로그램 연장을 의논 <9월 통화정책회의 의사록>

- '인플레이션 2% 목표를 달성 위해 행동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야 한다'
- 아울러 위원들은 내년 3월로 정해진 양적완화 종료 시점을 필요하다면 더 연장할 수 있다는 데 동의

- \* 피셔 FRB 부의장 'FOMC 위원 대부분 연내 금리인상 예상'
  - "월가 예상에 못 미친 9월 비농업부문 고용지표가 '골디락스' 수준에 매우 가깝다"...기준금리 인상 의지 내비쳐
- \* 美 도매재고, 농산물과 의류 재고 감소 영향으로 예상치를 웃도는 내림세 기록
  - 8월 도매재고 0.0% -> -0.2% (예상:-0.1%)
- \* 독일 8월 산업생산 전월비 2.5% 상승... 예상치 +0.8% 상회 (한달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)

[국내]

- \* 브렉시트 후 처음 만난 韓-英 재무장관..."FTA 긴밀히 협상"
- \* 이주열 "통화정책 쓸 수 있는 여력 제한적...상당히 신중해야"
  - "금리인하 마지막이라 판단하면 시장금리 하락 폭 제한적"
  - "韓 재정건전성 세계 톱 수준...재정정책 여력 충분"
  - "美 올해 금리 안 올리면 불확실성 더 클 것"
- \* 입찰 앞둔 국고채 5년물에 무슨 일이
  - 국고채 5년 지표물인 16-4호가 다음 주 입찰을 앞두고 변동성 확대.
  - 외인의 5년 지표물 대량 매수로 시중에 유통되는 물량이 적었던 탓.
- \* 올 국채 발행계획 110.1조에 남은 물량만 28조...어쩌나
  - 남은 국고채 발행 예정물량은 27조8천609억원. 10월에는 비경쟁인수물량과 더불어 국고채 50년물 발행물량도 포함
  - 남은 두 달 발행물량이 당초 계획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예측. 남은 물량이 그대로 시장에 풀리면 국고채 금리가 급등하는 등 큰 혼선을 빚을 수 있기 때문.
  - 기재부, 연말 시장 상황에 따라 월별·반기별 발행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

\*\*주간 예정 지표\*\*

10월 10일

- \*美'콜럼버스의 날'로 채권 및 선물시장 휴장
- \*일본 휴장 (체육의 날)
- [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(유로그룹) 회의]

독일-8월 무역수지 (예상:20.0B, 이전:19.4B)  
 -8월 수출(MoM) (예상:2.2%, 이전:-2.6%)

-8월 수입(MoM) (예상:0.7%, 이전:-0.7%)  
 미국-CB 고용추세지수 (이전:128.00)

10월 11일

[찰스 에번스 시카고 연은 총재 연설]  
 [유럽연합(EU) 재무장관 회의]

일본-8월 경상수지 (예상:1.539T, 이전:1.938T)  
 독일-10월 ZEW 경기기대지수 (예상:4.0, 이전:0.5)  
 유로존-ZEW 경기기대지수 (예상:6.3, 이전:5.4)  
 미국-9월 NFIB 소기업낙관지수 (예상:95.2, 이전:94.4)

10월 12일

[FOMC 의사록 공개]  
 [윌리엄 더틀리 뉴욕 연은 총재 연설]  
 [에스더 조지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 연설]

유로존-8월 산업생산(MoM) (예상:1.2%, 이전:-1.1%)  
 미국-8월 JOLTs 구인건수 (예상:5.724M, 이전:5.871M)  
 한국-9월 실업률 (예상:3.8%, 이전:3.8%)

10월 13일

[한국 금융통화위원회]  
 [BOE 통화정책회의]  
 [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연설]

미국-9월 수입물가지수(MoM) (예상:0.1%, 이전:-0.2%)  
     -9월 수출물가지수(MoM) (예상:0.1%, 이전:-0.8%)  
     -원유재고 (이전:-2.976M)  
     -실업보험청구건수 (예상:252K. 이전:249K)  
 중국-9월 무역수지 (예상:53.00B, 이전:52.05B)  
     -9월 수출(YoY) (예상:-3.0%, 이전:-2.8%)  
     -9월 수입(YoY) (예상:1.0%, 이전:1.5%)  
 독일-9월 CPI(YoY) (예상:0.7%, 이전:0.7%)

10월 14일

[에릭 로젠그렌 보스턴 연은 총재 연설]

[재닛 옐런 연준 의장 연설]

[마크 카니 BOE 총재 연설]

미국-9월 PPI(MoM) (예상:0.2%, 이전:0.0%)

-9월 근원 PPI(MoM) (예상:0.1%, 이전:0.1%)

-9월 소매판매(MoM) (예상:0.4%, 이전:-0.3%)

-9월 근원 소매판매(MoM) (예상:0.4%, 이전:-0.1%)

-8월 기업재고(MoM) (예상:0.1%, 이전:0.0%)

-10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(예상:92.0, 이전:91.2)

중국-9월 CPI(YoY) (예상:1.6%, 이전:1.3%)

-9월 PPI(YoY) (예상:-0.3%, 이전:-0.8%)

유로존-8월 무역수지 (예상:15.3B, 이전:25.3B)

한국-9월 수입물가지수(YoY) (이전:-8.5%)

-9월 수출물가지수(YoY) (이전:-9.7%)